

### 새 남편

#### 7/07 월

**사 54:5**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롬 4:15** 왜냐하면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

**롬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 갈 2:20-21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 3:24**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 7/08 화

**롬 7:2**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렘 31:32** 그것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호 2:16**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더 이상 ‘바알리’라 하지 않으리라.

**아 6:1**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가 버렸나요? 여인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돌아서 버렸나요? 우리 함께 그를 찾아봐요.”

**아 6:3**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고전 11:3**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 7/09 수

#### 롬 7:3-4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엡 5:23**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 7/10 목

#### 롬 7:4-5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 요 15:5, 8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갈 5:22-25**

22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7/11 금**

**롬 7:6-7**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갈 2:19-20**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마 5: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갈 3:2-3, 5**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5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7/12 토**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7: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고후 3:6-8, 15-18**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7/13 주일**

**엡 5:20-27**

20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22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3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24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